

제 9차 OECD WPIIS 회의
(정보사회지표 작업단) 참가결과

9th Meeting of OECD WPIIS
(W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)
Paris France, OECD, 27-28 April 2005

2005. 5.

통 계 청

I. 회의 개요

1. 회의명 : 제 9차 OECD WPIIS (정보사회지표 작업단 회의)
(W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)

2. 기 간 : 2005. 4. 27(수) ~ 4. 28(목)

3. 장 소 : 프랑스 파리 (OECD 본부)

4. 회의의 성격

- o OECD 중앙통계기관, 통계작성 기관 및 국제기구의 ICT 통계전문가들이 참가하여 e-커머스/e-비즈니스 및 ICT 분야(가계, 기업, 정부부문)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회원국간 비교 가능한 조사방법을 모색하며
- o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·분석함으로써 OECD내 정보경제(디지털 경제, 지식기반경제)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회의로서
- o 향후 WPIIS는 정부·가계·개인의 ICT 활용에 관한 공동조사를 계속하는 한편, 인터넷 콘텐츠 / 전자배송 / 보안 및 신뢰와 같은 복합적인 이용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회원국의 정보경제 현황을 상호비교하기 위한 새로운 이슈들을 발굴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

5. 주요 회의의제

- o 기업에서의 ICT 활용 측정
- o 가계/개인부문의 ICT 활용 측정
- o 개발을 위한 ICT 측정의 협력
- o 정보사회 측정 가이드
- o ICT 서비스 분류
- o 전자상거래 측정상의 이슈
- o 전자정부/온라인환경의 신뢰성 측정
- o 기타 ICT 측정

6. 회의 일정

의 제	비 고
2005. 4. 27. 월. (09:00-18:00)	
1. 의장단 선거 및 의제 채택	a(2005)1, m(2004)1
2. 기업의 ICT활용도의 측정 - 영국/캐나다의 테스트 결과 - e-biz 부문 항목 토론	oral (2005)x
3. 가정과 개인의 ICT활용도의 측정	(2005)x
4. 개발을 위한 ICT측정의 협력 (UNCTAD)	oral
5. 초청국가의 ICT 통계현황 발표 (체코/한국)	oral
6. 정보사회 측정의 가이드 - 부록3 각국의 메타데이터 수집결과 시범 - WPIIS의 메타데이터 수집 - 시의성, 자료배부 및 유지 전략 - 가구/기업의 ICT 활용조사에 관한 EU 매뉴얼	(2005)xoral (2005)x oral oral
7. 스코어보드 2005 (각국 ICT통계자료)	oral
8. 분류 (ISIC/CPC2007)	oral
2005. 4. 28. 화. (09:00-18:00)	
9. 전자정부의 측정	oral
10. 온라인 환경의 신뢰성 측정	oral
11. 디지털 콘텐츠의 측정	oral
12. telecommunication의 측정	oral
13. ICT 측정에 관한 보고 - 금융부문의 ICT 측정 (EU) - 스팸의 측정 (프랑스) - ICT 기술인력 측정 (EU)	oral oral oral
14. ICT 투자와 소비 측정	oral
15. 기타	oral

7. 회의 참가자 (총 82명 참가)

- OECD 회원국 : 25개국 대표 69 명
 - 한국 참가자 명단
 - OECD 한국대표부 정석균 과장
 - 통계청 서비스업통계과 서찬일 사무관
 - 정보통신부 동향분석담당관실 전한성 사무관
 - 정보통신산업협회 양태준 과장
 - 한국전산원 정보화평가부 정현민 전임연구원
 -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안인호 팀장
 - 한국정보보호협회 황성원 연구원
- 국제기구 : UNCTAD, EC, ITU, UNSD 등 대표 8 명
- OECD 사무국 : 5 명

II. 한국의 전자상거래통계 관련 발표내용

□ 한국의 2001-2004년 조사결과

- 한국의 전자상거래는 2001-2004년간 260% 성장하여 2004년 현재 314조 원 (2,740억불)의 시장규모로서 전체 거래액(금융보험업 제외) 의 17.1% (잠정) 수준임
- 2003년 OECD scoreboard
 - 전자상거래율 : 0.3% ~ 3.8% 수준
 - 전자상거래율 10% 초과국가 : 오스트리아, 스웨덴, 핀란드, 아일랜드

□ OECD 모델조사표 개정에 대한 의견 (2005년말 확정)

- 현재 OECD의 모델조사표에서 측정상의 이슈에 대한 한국자료 발표
- OECD 모델조사표로는 구조의 한계상 작성이 어려운 ‘광의/협의 전자상거래 구분’, ‘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’, ‘소재지별 전자상거래’등의 한국 자

료 설명

- 2005년말 현행 OECD 모델조사표의 개정을 앞두고 ‘분류’에 관한 우리의 의견 개진
 - 한국은 OECD의 정의/개념/가이드라인 및 지표 등을 모두 준용하지만 조사방법론은 OECD와 매우 다름
 - 한국모델에서는 현 OECD 모델의 측정이슈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요가 높은 전자지불 등의 지표작성이 비교적 용이함
- 통계작성의 핵심은 정의와 분류인데 현행 OECD 모델조사표는 ‘분류’에 관한 세부적 지표의 보완 필요성이 있음. 모델조사표의 개정을 앞두고 한국의 전자상거래 지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

Ⅲ. 주요 논의 결과 및 평가

1. 주요 논의 결과

- 기업의 ICT 이용에 관한 설문지(수정안) 논의
 - IT 보안, e-정부 및 e-biz 관련 조사문항의 추가(총조사항목수 : 34→36개), 설문지 문항의 재구성(핵심, 비핵심으로 구분 등) 및 조사서 명칭의 변경(Measuring ICT Usage and Electronic Commerce in Enterprise→ ICT Use by Business)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음
 - 그러나 10인이하 소기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,
 -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‘전자상거래 통계조사의 경험’을 소개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구분 필요성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으로서 거래의 경쟁성을 기준으로 공개형/협력형 거래의 구분을 제안함
 - 핀란드는 설문조사서를 3년마다 리뷰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함
 - 의장은 설문조사서(수정안)에 대해 5월말까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10월 ICCP회의서 서면공개를 추진하기로 함

- 개인/가계의 ICT 이용에 관한 설문지(수정안) 논의
 - 이동전화, IT 보안 및 e-정부 관련 조사항목의 추가(총조사항목수 : 34 →36개), 설문지 문항의 재구성(핵심, 비핵심으로 구분 등) 및 조사서 명칭의 변경(Measuring ICT Usage and Electronic Commerce in Households/by Individuals→ICT Use by Household and Individuals)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음
 - 그러나 조사대상을 제한(16세이상→16세~74세)과 관련하여 우리나라, 멕시코 등이 16세 미만 및 74세 이상에 대해서도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함
 - 우리나라는 모바일인터넷 접속관련 설문조사항목과 관련하여 유럽방식의 UMTS외에 CDMA2000을 병기하도록 요청함
 - 의장은 설문조사서(수정안)에 대해 5월말까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10월 ICCP회의서 서면공개를 추진하기로 함

- OECD 사무국은 통계조사시 활용할 ‘정보사회 측정을 위한 가이드(안)’을 발표하고 5월말까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 후 10월 ICCP회의서 서면공개를 추진하기로 함

- OECD 사무국은 ‘Scoreboard 2005’와 관련하여 각국의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6월까지 최종 마무리하여 9월중 발표할 예정임을 밝힘

- WPIIS 의장으로 Ms. Patricia Burkley(미국, 상무부 선임정책자문관)이 재선임됨

- 차기회의는 06. 5. 3~4일에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함
 - OECD 건물 개축공사 관계로 회의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며 회원국이 회의개최를 유치하여 주기를 요청함(회의날짜는 회원국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함)

2. 관찰 및 평가

- 금번 회의에서는 기업 및 개인/가구부문의 ICT 측정(수정안), 온라인

환경의 안전성 측정 등에 대해 회원국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짐

- 기업의 ICT 이용에 관한 측정 관련 안건에서는 비 인터넷 (Non-Internet)기반 거래 범위의 적정성 문제, e-mail 이용 거래 및 EDI기반 거래의 전자상거래 포함여부 등이 주요 회원국들의 관심사항으로 대두
- 가구/개인부문 ICT 이용에 관한 측정 관련 안건에서는 현행 설문대상자의 연령범위(16세~74세)가 적정한지, 소득규모별 조사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
-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 측정부문에서는 캐나다, 호주, EC에서 각국 사례를 발표하고,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파이웨어, 애드웨어 등에 대해 주요국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등으로 높은 관심 표명
- o WPIIS는 올해 5월말까지 기업 및 가구/개인 부문 ICT 측정 설문지 수정안, 정보사회 측정을 위한 가이드 최종안, 온라인 환경 안전성 측정에 대한 각 회원들의 서면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
- o ICT기술의 융복합화 진전 등 급속한 기술발달에 따라 향후 ICT관련 통계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시
 -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, 기기 또는 서비스 간 융합에 따른 통신서비스의 재분류 문제 등이 이슈로 제기
- o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(KISA)에서 추진 중인 ‘정보보호지수’ 및 한국전산원의 ‘국가정보화지수’ 사례를 발표하여 회원국들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반응을 얻음
 - EC의 경우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관련 통계조사를 요청하는 등 우리나라 경험을 적극 참고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
- o 또한 우리나라는 OECD의 정보보호 관련 지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여 WPIIS 사무국으로부터 적절한 문제제기라는 평가를 받음
 - 현재 OECD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지표로 특정기술을 사용한 보안서버수를 사용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 등은 보안서버 이외에 공인전자인증제도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보호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

- 우리나라 대표단은 ‘모바일 인터넷 접속관련 설문항목’이 유럽방식의 UMTS만을 표기하고 있어 북미 및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CDMA2000을 반드시 병기하여야함을 주장
 - 향후에도 IT 통계 관련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 및 정보화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가 요구

- OECD에서 작성하고 있는 ‘Scoreboard 2005’에 대비하여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요구
 - ※ 금번 회의 시 우리나라 대표단은 OECD ‘Scoreboard 2005’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‘Scoreboard 2005’ 작성 추진 현황 및 향후 지속적인 협조의지를 표명

- WPIIS 사무국에서는 회원국별로 ICT 통계현황 제공할 수 있는 웹을 설치해 놓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현황을 정확히 소개하고 우리의 IT관련 통계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

- 금번 회의를 통하여 급변하는 ICT 기술 및 정보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통계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, OECD는 물론이고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도 적절한 통계의 공급은 이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찰
 -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측정·개발하고 있는 통계 및 지수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측정 분야에서도 IT강국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

- 우리나라는 ICT관련 통계조사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산출하고는 있으나, 영문화 작업이 병행되지 않아 국제기구를 통한 홍보가 미흡
 - 향후 ICT관련 통계조사결과는 영문화 병행을 의무화하는 등 효과적인 대외홍보 방안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ICT수준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

IV. 회의 상세 내용

1. 신입 의장 선출

- OECD의 위원회 및 하위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장을 선출
 - 의장 : Ms. Patricia Burkley(미국, 상무부 선임정책자문관, 재선)

2. 의제 채택 [DSTI/ICCP/IIS/A(2005)1]

- 사무국이 제시한 제9차 정보사회지표작업반 회의 의제를 채택함

3. 제8차 정보사회지표작업반 회의 회의록 승인 [DSTI/ICCP/IIS/M(2004)1]

- 사무국이 작성한 제8차 작업반회의 ('04. 4. 29 ~ 30) 회의록을 승인함

4. 기업의 ICT 활용에 관한 측정

□ e-비즈니스와 생산성(사례발표)

- 영국 통계청은 50천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IT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
 -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옴
 - 생산성 제고효과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큼
 - IT투자는 다른 부문의 투자와 함께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옴

□ 기업의 e-비즈니스 측정 설문지(사례발표)

- 캐나다 통계청은 기업의 e-biz 현황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항을 마련하여 기업의 ICT 활용도 조사설문서에 포함하여 활용할 계획을 발표
 - 업종, 규모, 종사자 수가 상이한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 실시(6.20.~7.8. 인터뷰조사 실시예정)

- 조사결과에 대한 Peer Review 등을 통해 설문조항을 수정보완(8월중 순경까지)

□ 기업의 ICT 이용에 관한 설문지(수정안)에 관한 논의 [DSTI/ICCP/IIS(2005)2]

- IT 보안, e-정부 및 e-biz 관련 조사문항의 추가(총조사항목수 : 34→36 개), 설문지 문항의 재구성(핵심, 비핵심으로 구분 등) 및 조사서 명칭의 변경(Measuring ICT Usage and Electronic Commerce in Enterprise→ ICT Use by Business)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음
- 조사대상 기업규모 및 전자상거래의 구분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제기됨
 - EC 등은 ICT의 영향은 10인이하의 기업에 있어서 더 큼을 언급하며 소기업을 조사하는 것의 필요함을 언급하고, 독일 등은 조사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기함. 아울러 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문항 중 필요 문항만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됨
 - 호주 등은 이메일을 통한 거래를 e-commerce에는 제외하고 e-biz에는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고 e-commerce 및 e-biz 모두에 포함하거나 모두 제외 시키는 것이 논리적임을 언급함
 - 전자상거래를 ‘인터넷을 통한 거래’와 ‘컴퓨터를 매개로 한 네트워크 거래’로 구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구분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거론함
 - 아울러 우리나라 통계청의 ‘전자상거래 통계조사’의 경험을 소개하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기초한 통계조사가 유익함을 거론함
 - 핀란드는 설문조사서를 3년마다 리뷰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함
- 의장은 설문조사서(수정안)에 대해 5월말까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10월 ICCP회의서 서면공개를 추진하기로 함

5. 가구 및 개인의 ICT 이용에 관한 측정

□ 가구 및 개인의 ICT 이용에 관한 설문지(수정안) 논의[DSTI/ICCP/IIS(2005)3]

- 이동전화, IT 보안 및 e-정부 관련 조사문항의 추가(총조사항목수 : 34 →36개), 설문지 문항의 재구성(핵심, 비핵심으로 구분 등) 및 조사서 명칭의 변경(Measuring ICT Usage and Electronic Commerce in Households/by Individuals→ICT Use by Household and Individuals)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음
- 조사대상 연령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제기됨
 - 개인조사대상을 16세~74세로 제한(기존 : 16세이상)과 관련하여 우리나라, 멕시코 등이 16세 미만 및 74세 이상에 대해서도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함
 - 의장은 16세~74세 이외의 연령에 대한 조사는 각국의 필요에 따라서 조사하도록 하고, OECD 조사에서는 제외하기로 하는 방안을 잠정 제안함
- 우리나라는 모바일인터넷 접속관련 설문조사항목과 관련하여 유럽방식의 UMTS외에 CDMA2000을 병기하도록 요청함
- 의장은 설문조사서(수정안)에 대해 5월말까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10월 ICCP회의서 서면공개를 추진하기로 함

6. 발전을 위한 ICT 측정의 Partnership 형성

□ 국제기구간 협력과 WSIS 준비상황 등

- 제2차 WSIS(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)에 제출할 ICT 지표(안)의 작성 과정 및 국제기구간 공동작업 일정에 대해 UNCTAD가 발표
 - 정보사회측정을 위한 WSIS Thematic Meeting(2005.2.7~9, UN 유럽본부)
 - WSIS Thematic Meeting에서 선정한 지표(안)을 WSIS PrepCom2에 보고(2005.2.17~25)
 - ICT 지표(안) UN 통계위원회 보고(2005.3)
 - 국제기구별 회원국들의 의견을 접수하여 ICT 지표(안) 수정 작업 계속
 - WSIS에서 Side Event로 지표 회의 진행 예정(2005.11.15, 튀니지)

7. ICT 측정에 관한 회원국 사례발표

□ 체코, 멕시코, 우리나라의 ICT 통계작성 현황 발표

- 체코와 멕시코는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ICT 통계작성 현황의 일반적 사항을 발표
- 우리나라는 정보보호 통계, 정보보호지수 및 국가정보화지수에 대해 발표
 - 정보보호 통계에 대한 OECD 회원국의 관련자료 미비 등을 지적하고, 향후 일본 IPA와 공동 연구를 통해 2006년 말까지 정보보호지수를 산출할 계획을 발표
 - 국가정보화지수에 대해서는 개발 현황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
 - 특히, 우리나라의 발표 중 정보보호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프랑스를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, 특히 EC는 향후 EC 차원의 조사에 참고할 예정으로 자료를 요청

8. 정보사회 측정을 위한 가이드

□ 정보사회 측정을 위한 가이드(최종안)에 대한 토의 [DSTI/ICCP/IIS(2005)4]

- 가이드는 정보사회 측정을 위한 통계조사의 표준안을 제시하여 관련 통계의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여 국가별 벤치마킹 등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
- 가이드는 ICT 인프라, 제품, 정보 및 전자 콘텐츠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점에서 조사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
 - 부록에서는 비회원국의 통계 현황을 소개
 - ※ 2004년 말 현재 전체 회원국 중 15개국에서 메타 데이터 수집 완료
- 완성된 가이드 최종안은 2005년 5월말까지 회원국들에게 서면 검토를 받을 예정
 - 2005년 8월말 : 최종안 수정

- 2005년 9월 : 회원국별 자국 통계자료 확인
- 2005년 9월말 : ICCP(정보통신위원회)에 최종안 제출
- 2005년 10월말 : 웹 사이트를 통해 최종안 발표

9. ICT 기술과 직업

□ ICT 기술과 직업에 대한 OECD와 ILO의 통계작성 현황

- o 국제노동기구(ILO)에서 국제표준직업분류(ISCO-88)의 개정안을 발표
 - 신규 직업군의 추가, 직업군별 통합 및 소멸한 직업에 대한 삭제 등이 주요 개선내용
 - 특히, ILO에서는 ICT를 이용하는 직업군을 ICT Specialists, Advanced ICT Users, Basic ICT Users의 3등급으로 구분
 - ※ 우리나라의 경우 IT인력을 IT산업인력, IT직업인력, IT전문 인력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집계
- o OECD 정보경제작업반(WPIE)은 직업의 분류와 인력통계 집계상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
 - 향후 연구과제로 생산성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ICT 직업능력의 측정, ICT 인력 동향 분석 등을 제기
- o Eurostat은 ICT 인력과 관련하여 수요측면에서의 ICT 직업능력 측정 현황에 대해 발표
 - e-skill이 무엇인지에 관한 합의된 정의 및 조사 설계에 대한 참조 모델이 부재하는 한계를 설명

10. ICT 산업 분류

□ 국제산업분류 및 CPC 개정 현황

- o 현행 UN 국제표준인 CPC(UN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)와 HS (Harmonized System classification)는 2007년 개정 예정

- CPC 2007 개정안은 HS 2007을 기초로 개정할 예정
- o WPIIS는 ICT 품목 및 서비스도 향후 CPC 및 HS 개정과 연계하여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
- o 향후 UN통계국(UNSD)는 금년 3월 UN TSG에 의해 제안된 CPC 개정안을 올해 6월 UN Classifications Expert Group에 상정하여 1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, 2006년 3월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

11. Scoreboard 2005

□ Scoreboard 2005의 작성 현황

- o Scoreboard는 OECD 산하 ICCP(정보통신위원회)에서 과학, 기술, 정보에 관해 약 75개 지표를 선정하여 작성
 - 2005년에 7번째로 발간되며, 현재 ICCP 산하 다른 작업반들과 공동으로 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작업 진행
- o 현재 회원국으로부터 ICT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,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부터 먼저 제출하도록 요구
 -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에서 자료제출 완료
 - 2005년 6월 : 지표 최종 수집
 - 2005년 7-8월 : 웹 버전 완성
 - 2005년 9월 : Scoreboard 2005 발표
 - 2005년 10월 : ICCP 제출

12. 전자정부 측정

□ OECD와 Eurostat의 전자정부 측정 현황

- o OECD WPIIS에서는 2000년과 2003년 정기회의에서 전자정부 측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
 - 그러나, 현재 전자정부 측정에 관한 지표 작업은 공식 통계에 한정, 모든

회원국들에서 조사 미 진행, 전자정부에 대한 범위 및 조사단위의 불일치 등으로 국제비교에 한계

- WPIIS에서는 가가와 기업의 ICT 이용에 관한 설문지에 전자정부 부문을 추가하기로 결정
-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올해 안으로 OECD 전자정부국에서 발표 예정

o Eurostat 또한 전자정부에 관한 조사항목을 2006년부터 기업의 ICT 이용에 관한 설문지에 전자정부 모듈을 포함하여 조사하기로 결정

13.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성 측정

□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OECD의 연구 현황

- o OECD는 9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 환경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은 기업과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의제로 채택
- o 사무국은 2006년에도 전문가그룹회의나 워크숍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성에 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
- o 우리나라 대표단은 인터넷 환경의 안전성 측정과 관련하여 OECD가 집계하고 있는 보안서버 통계에 대한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
 - 한국을 비롯해, 홍콩, 싱가포르,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공인인증방식의 인증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안서버 설치 유무에 대한 조사로 전자거래의 정보보호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왜곡된 결과가 나올 우려가 높음을 지적
 - 각국 인증체계 및 정보보호정책 등을 고려하여 항목을 설정,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OECD 사무국으로부터 좋은 지적이라는 평가를 얻어냄
 - EC는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실태조사의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등에 관한 영문 보고서 요청하는 한편,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스팸 통계조사방법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표명

14. 정보통신 부문의 측정 : ITU의 WTI 소개

- ITU는 세계통신지표(WTI:World Telecommunication Indicators)가 현재 2003년 버전이 이용가능하나 6월말까지 2005년 버전이 발표될 것임을 소개함(www.itu.int/itu-d/ict)
 - 통신요금, 통신서비스 질, 통신관련 수입 및 투자 등
- 아우러 관련 통계 수집을 위한 정부, 통신사업자, 규제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통계자료 수집에 있어서 모범사례를 서로 공유할 것을 강조함

15. 스팸 측정 : 프랑스의 사례발표

- 프랑스는 자국의 스팸 통계 사례발표를 통해 68%가 스팸메일 삭제에 매일 5분미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언급하며, 인터넷 이용자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함
- 스팸대응에 대해서는 2/3가 소송을 해야한다고 답변하는 반면, 32%는 내용물을 보기 위해 메일을 읽는다고 답변하여 이중적인 모습을 모임

16. 기타 차기회의 등

- 차기회의는 06. 5. 3~4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함
 - OECD 건물 개축공사로 회의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을 언급하며 회원국이 회의개최를 유치해 줄 것을 요청함
 - 회원국이 회의유치시 회의일시는 회원국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.